

“지역경제 살리고 교육사업 박차... ‘행복 곡성’ 만들 것”



재선 성공 유근기 곡성군수 민선 7기 구상

출산·보육 위주 탈피 교육·일자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경쟁력 있고 대접받는 농업 육성
춤추는 ‘그물망 복지’ 펼쳐 전국 최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사업으로 행복 지수 최고인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행복지수만큼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고장 곡성을 만들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군수는 행복지수가 높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자연속의 창의 교육 ▲소외없는 그물망 복지 ▲남만 힐링 문화관광 ▲새로운 가치창출 미래 농업 ▲사람중심의 감동행정을 국정 방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선인 만큼 유 군수의 행보는 ‘일사천리’다. 민선 7기 들어 주민과의 소통을 최고 가치로 삼고 당선과 함께 업무에 착수해 분야별 민간대표와 공무원으로 곡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약사업 75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또 공약사항을 군민에게 보고하고 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 군수는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보장 받으며 어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곡성, 소외된 분들이 없는 그물망 복지가 이뤄지는 곡성,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지역 상가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곡성, 활기차고 행복한 곡성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의지도 강력했다. 경제가 살아나면 이를 계기로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곡성은 곡성과 옥과, 석곡 3개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 권역별(곡성·석곡·옥과 3개 권역)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 살리기를 시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시로 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이 유 군수의 생각이다.

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기존의 출산·보육 중심에서 교육·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해결된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유 군수는 미래농업에 대한 전망과 농경지에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유 군수는 “유기농 생산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농업인의 교류와 자생력을 기르는 사업을 펼치고 한우 종자 개량사업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 지역명품 농산물 육성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대접받는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한치의 소외도 없는 춤추는 ‘그물망 복지’도 약속했다.

그는 섬세한 여성정책의 추진과 함께 아이는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우고 청년은 일자리를 보장받고 어르신은 건강한 노후

민선 7기 국정 방침

-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 ▲ 자연속의 창의 교육
- ▲ 소외없는 그물망 복지
- ▲ 남만 힐링 문화관광
- ▲ 새로운 가치창출 미래 농업
- ▲ 사람중심의 감동행정

를 보장받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권역별 청춘센터 운영과 대상포진 환자에 대한 예방백신 무료접종, 가정형 치매 전담시설 설치, IoT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지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회관 건립, 여성의 권익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근기 군수는 “조선 때의 마음가짐으로 군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고 약속한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교육, 생활복지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면 10년 안에 행복한 도시라는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곡성 농촌유학 여름캠프’ 인기 많네

수도권·영남권 등 전국서 몰려

곡성군이 진행하는 ‘곡성 농촌유학 여름캠프, 섬진강 물 따라’가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에서 참가자가 몰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농촌유학 여름캠프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3배가 넘게 신청했으며 이중 최종 96명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농촌유학 여름캠프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1차로 신청한 도시지역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실시하며 오산면 심정효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진행한다.

첫째 날은 오곡면 침곡리 계곡에서 ‘물총놀이’ 등을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날은 도깨비마을에서 ‘산도깨비랑 놀아요, 숲속체험’을 가정농촌휴양마을에서 ‘내손으로 만드는 인절미체험’, 곡성천 문대에서는 ‘별자리 관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



셋째 날은 청소년 오리엔티어링을 실시해 참가자들이 ‘곡성 사람책(휴먼라이브러리)’을 직접 인터뷰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농촌에서의 행복한 삶을 체험하고 배운다.

또 마지막 날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가는 여행으로 여름캠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촌유학 여름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국에 젊은 학부모들이 곡성으로 이사 오게 하는 장구로 활용하고 교육 정책을 통한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곡성군이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 실시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신규수급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로 야외활동 때 감염병 예방하세요

주요 등산로·산책로 입구에 설치

곡성군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입구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야외활동이 잦은 여름철 감염병 예방에 나섰다.

여름철에는 야생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피서철을 맞아 산이나 계곡 등 잦은 야외활동으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군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쯤쯤가무시증, 일본뇌염 등을 매개하는 진드기와 모기의 접근을 막아 야외활동에서 우려되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곡성을 확정리 삼인동 약수터’와 ‘동약체육공원 입구’ 등 주요 야외활동 장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1회 분사로 3~4시간 동안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아 주며 보관함 한쪽에 설치된 노즐 손잡이를 눌러 얼굴을 제외한 피부나 겉옷에 분사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모두 세탁하고 외출 후 귀가해서



산책을 위해 동약체육공원을 찾은 주민이 공원 입구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는 반드시 목욕을 하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보건의료원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외에도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1만

7000개를 구입해 곡성군 전체 가구에 1개씩 배부하는 등 여름철 야생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Let's GokSeong

아름다운 섬진강변을 감상하며 칙칙뾰족 추억의 소리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타는 색다른 경험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래프팅, 레일바이크, 오토캠핑장, 침실습지, 청계동계곡 등 신나는 체험 가득한 곡성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섬진강 래프팅
 도심사 오토캠핑장
 증기기관차
 섬진강 천문대

 장미공원
 섬진강 침실습지
 청계동계곡
 섬진강 레일바이크

꼭 보고 싶은 곳

곡성

심미 있는 곳

곡성



곡성관광안내 061) 360-8379
곡성관광택시 1522-9053(사전예약)
www.gokseong.go.kr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 수상
곡성명품멜론

